

해양사고 잦은 목포·대불항 방제선 태부족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감사...건수 대비 배치기준 불합리

포항 보다 사고 두배 많지만 방제선은 절반 수준인 2척뿐

해양 오염사고가 빈번한 목포항보다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이 적은 군산·포항·평택항에 방제선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방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선박의 입항 횟수와 오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해 전국 11개 항(구역)에 방제선을 우선 배치하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목포항 등 사고 빈도가 높은 항만 일부가 누락돼 있는 등 해양 방제 업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방제선 배치

기준 등 불합리'라는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목포·대불항, 군산항, 포항항, 평택항에서는 각각 7건, 37건, 40건, 35건의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목포·대불항에 2척의 방제선을 배치·운영하는 반면, 해양 오염 사고가 목포항의 절반 수준인 군산항과 포항항, 평택항에는 3~4척의 방제선을 배치·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선박 입항 실적 ▲목포·대불항 1만1748회(방제선 2척) ▲군산항 9670회(방제선 4척) ▲포항항 1949척(방제선 3척)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방제선 배치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방제선 배치의 근거가 되는 해양수산부의 시행령도 허술하게 규정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방제선 및 방제장비 배치 해역을 규정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령)'은 선박 입항 횟수와 해양 오염 사고 발생 빈도를 고려해 인천항, 포항항, 평택항 등 11개 항에 방제선 등 방제설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목포항이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항만별 해양 오염 사고 위험 분석'에서도 목포항은 중위험 항만으로 지정돼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해양오염 사고 발생 빈도 및 입항 실적 모두가 낮은 군산항은 고위험도 항만으로 지정돼 있는 등 항만별 위험도 분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방제선 배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선박 입출항, 해양오염사고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방제선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목포항 등에 방제선을 적절히 배치해 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방제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또 한 분...

위안부 피해 구레 최갑순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구레 출신의 최갑순 할머니가 지난 5일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에 따르면 최 할머니는 전날 새벽 0시56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한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1919년 구레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15살 때 일본 경찰이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집에 찾아오자 대신 끌려 갔다. 여덟 식구의 가장인 아버지가 끌려가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해서다.

고향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고, 지난 2010년부터는 노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복구 공사 한창 '서해대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3개가 끊어지거나 손상돼 서해대교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지난 5일 오전부터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오는 24일까지 케이블 2개의 교체작업을 완료해 성탄절인 25일에는 서해대교 통행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서해대교 교통통제 사흘째인 6일 주변 국도는 우회하려는 차들이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예산' 형평성 논란

지급대상 축소 반발에 전액 편성...어린이집 미반영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예산 편성"이라고거나 "보편적 교육 복지" 원칙을 저버린 행태"라는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지만 자칫 어린이집측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애초 내년도 예산안(1

조7015억)에 반영하지 않았던 만 3~5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사업비(108억)를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황흥규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정 형편 때문에 일부만 편성했던 유치원 방과후 과정 사업비를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왜 광주만 삭감한 것이냐", "관련 협의도 없이 갑자기(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면 유치원 운영을 어떻게 하란 말이나"는 유치원업계와 시의회측 반발을 반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정신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등은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에 역행하는 정책인데다, '사전 협의조차 없는 일방통행식 예산 편성'이라며 전년도와 같은 예산 규모로 편성하라며 시교육청을 압박해왔다.

시교육청은 애초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비 706억(유아학비 544억+방과후 과정비 166억) 중 유아학비(544억) 외에 방과후 과정비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비용(54억)만 반영, 시의회에 제출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706억)가 모두 반영되면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마음 고생을 덜게 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형평성을 내세우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670억)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7 해질 03:13
 해짐 17:20 달짐 14:51



아침 안개 주의
 대체로 맑지만 아침에 안개가 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11	보성	맑음	-2/10
목포	맑음	1/10	순천	맑음	1/12
여수	맑음	5/11	영광	맑음	-3/10
나주	맑음	-4/11	진도	맑음	1/11
완도	맑음	2/11	진주	맑음	-2/9
구례	맑음	-4/10	군산	맑음	-1/8
강진	맑음	-1/11	남원	맑음	4/9
해남	맑음	-1/11	축산도	맑음	6/9
장성	맑음	-4/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남부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28	04:28
	23:26	17:04
여수	06:45	00:04
	18:33	12:40

◇주간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	☀	☁	☁	☀	☀	☀
0/12	3/15	5/11	8/9	5/9	3/11	2/9

◇생활지수

- 관심: 체감온도
- 낮음: 동파
- 높음: 뇌졸중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평화적 마무리

조계사 퇴거 시한 넘긴 한상균 "노동계약 해결 전까진 못 나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우려와 달리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진보성향 단체들의 연합체인 '백남기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4000명)이 모인 가운데 '2차 민중총궐기 및 백남기 농민 쉼터 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나고 오후 4시40분경부터 행진이 시작됐지만, 주최 측은 전차림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동당 위원장이 피신해 있는 조계사 방면으로 접근하는 잠가자도 없었다.

대학교까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1차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앞 도로에서 정리집회를 열었다.

한편 1차 집회 이후 한 위원장은 지난 달 16일부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피신해 있다.

조계사 신도회는 6일까지 조계사에서 나가달라고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한 위원장과 수차례 만나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계약'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광주지방경찰청은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은 이 기간동안 강력범죄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경찰, 경찰기동대, 다목적기동순찰대를 총동원해 치안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교 유출업소가 밀집하고

청소년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은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또 주택가·원룸·편의점·금은방 등 범죄 다발 우려 지역과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강·절도 예방 및 대처요령 홍보 활동도 펼친다. 중요 범죄가 발생하면 112상황실과 순찰팀장이 협력해 신속히 출동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기안전 119」 ☎1588-7500
 NAVER blog.naver.com/kescomiri

'무분별한 전기사용 당신의 안전을 갉아먹습니다'

콘센트에는 적정 용량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쓰지않는 전기코드는 뽑아두는 습관을...

매월 4일은 전기안전점검의 날

생활 속의 전기안전요령 이렇게 하면 됩니다

-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용량에 맞게 사용합니다.
- ▶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합니다.
- ▶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 ▶ 비 올 때 가로등, 신호등, 옥외공고물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 건설공사를 하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는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기안전 선도기관 양보한 고객 신념나는 일터

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